



평화나눔의 시선

2026.07.01. | 제26-03호

청년은 정치적 감정을 어디에서 배우는가

- 청년층 성별 투표 양극화와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의 과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며 ... “정의의 작품”(이사 32,17 참조)이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 78항 -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방송사에서 발표한 결과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는 같은 또래의 청년인데 남성은 보수 정당 후보를, 여성은 진보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성별 투표 선택의 양극화가 또 한 번 선명하게 나타난 내용이었다. 곧, 전국 기준으로 20대 이하 남성의 절반 이상이 보수 후보를, 20대 이하 여성의 3분의 2가 진보 후보를 선택했고, 특히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20대 남성의 75.3%가 보수 성향의 후보에게 섰다.¹⁾ 다만 같은 조사에서 서울의 30대 여성은 오히려 보수 후보를 더 지지했고, 그 배경으로는 주거 문제가 꼽혔다.²⁾ 균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청년의 표심은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삶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1)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전국 수치는 김정진, 「[6·3 지선] 男은 국힘·女는 민주…2030 정치성향 양극화 여전」, 연합뉴스, 2026. 6. 3.; 서울 20대 남성 75.3% 수치는 「서울 4050은 정원오…20대男은 75%가 오세훈」, 서울신문, 2026. 6. 3. 출구조사는 표본조사로서 집단 수준의 분포 확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2) 최해련, 「서울 '이대남' 75% 오세훈에 몰표…30대 여성도 진보진영 이탈」, 한국경제, 2026. 6. 4.

이 글은 이 현상을 정치 평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학의 관점에서 읽으려 한다. 화두는 두 갈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질문이다. 오늘의 청년들은 정치적 감정을 어디에서 배우는가? 그 감정은 어떻게 특정 집단을 향한 미움과 조롱의 언어로 번역되는가? 정치적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그 감정이 적대의 언어로 악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직시해야 할 질문인 동시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오랜 시간 전력을 다해 걸어 온 평화를 위한 질문이기도 하다.

보수화와 정서적 양극화의 구분

먼저 반드시 그어야 할 선이 하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적인 정치 선택은 진보적 선택과 똑같이 정당하다. 청년 남성이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는 평가나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정치학자들은 오늘날의 양극화를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라 부른다. 정책이나 이념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 사람을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대화할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³⁾ 이 적대감이 타자화와 혐오, 도덕화가 결합된 정치적 종파주의로 굳어지면 상대의 패배를 위해 민주적 규범의 훼손마저 감수하려는 태도가 자라난다.⁴⁾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 특정 시점에 보수나 진보를 선택하는 행위는 정당한 정치적 행위이다. 둘, 집단 사이의 감정적 거리가 멀어지는 양극화는 우려할 균열이며, 셋,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겨 선거 승복과 사법 제도마저 부정하는 극단화는 민주주의의 경계를 넘는 일이다. 그리고 네번째로 그 부정이 물리적 행동이 되는 폭력화는 평화가 깨지는 지점이다.

2025년 1월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단계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3) Iyengar, S., Lelkes, Y., Levendusky, M., Malhotra, N., & Westwood, S. J.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 - 146.

4) Finkel, E. J. et al. (2020). Political sectarianism in America. *Science*, 370(6516), 533 - 536; McCoy, J., Rahman, T., & Somer, M. (2018). Polarization and the global crisis of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2(1), 16 - 42.

절반이 넘는 46명이 20~30대였다.⁵⁾ 가담자는 극소수였으므로 이를 세대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그러나 격양된 정치 감정이 온라인의 음모론, 제도 불신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단서로는 충분했다.

결국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청년 남성이 보수화된 이유가 아니라, 집단 사이의 적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학습되는 가이다. 무엇이 학습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교육의 질문이 된다.

온라인에 숨은 교육과정과 감정의 번역

교육학에는 ‘숨은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라는 오래된 개념이 있다. 학생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우지는 않는다. 학교의 분위기와 교사의 태도, 또래의 시선 속에서 아무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가치와 태도를 함께 배운다.⁶⁾ 이 개념을 학교 담장 너머로 확장해 보자. 오늘의 청년에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창과 익명 게시판이 또 하나의 거대한 학교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소년의 95.1%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것이 시사성 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⁷⁾ 이 같은 온라인 환경은 비슷한 감정의 구도를 매일 반복해 제공하고,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을 우리 편의 표지로 삼으며, 격양된 표현일수록 조회 수와 소속감으로 보상하고, 그렇게 익힌 감정의 문법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 환경 안에서 반복되고 규범이 되고 보상받고 내면화되는 것, 이것은 정확히 교육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⁸⁾ 그래서 이 자리는 마치 ‘온라인 학교’와도 같이 느껴진다.

다만 진짜 학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학교에는 자신이 끼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교사가 있지만, 이 온라인 환경에는 교사가 없다. 그 설계자들은 교육적 책임이 아니라 이용자를 더 오래 붙잡아 두려는 상업적 논리를 따른다. 게다가 입학(?) 연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

5) 「2030 남성은 왜 ‘서부지법 난동’을 주도했을까」, 뉴시스, 2025. 1. 21.(현행범 90명 중 20~30대 46명); 이후 검거 107명·구속 66명은 서울신문, 2025. 2. 7.

6) Jackson, P. W. (1990). Life in classrooms (Reissued ed.). Teachers College Press(원저 1968); Apple, M. W. (2004). Ideology and curriculum (3rd ed.). RoutledgeFalmer(원저 1979).

7)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025.(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95.1%)

8) 김한나, 「20대 청년 유권자의 젠더 균열과 투표 선택: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15(2022), 296 - 338. 온라인 반향실·필터버블 구조는 Cinelli et al.(2021), Pariser(2011) 참조.

다 훨씬 어리다. 혐오 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그것을 온라인 상에서 경험했고,⁹⁾ 조롱과 비하의 언어는 또래 문화 속에서 놀이와 유머의 옷을 입고 유통되고 있다. 정치 감정의 학습은 청년기가 아니라 이미 학령기에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온라인 학교가 그토록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까닭은 공교육이 비워 둔 자리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은 잘 가르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논쟁하고 경청하며, 졌을 때 승복하는 경험은 좀처럼 제공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정치를 제도로는 배우되 실천으로는 한 번도 연습하지 못한 채 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길러진 청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국내 연구들이 보여 주는 그림은 통념과 많이 다르다. 청년 남성들의 보수적인 성향의 결집은 일관된 이념의 채택이 아니다. 20대 남성은 안보에서는 보수적이지만 경제·노동 문제에서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진보적이다.¹⁰⁾ 청년 남성이 여성을 혐오해서 그렇다는 통념도 실증적으로 기각되었다. 청년 남성의 성차별 의식은 다른 세대 남성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고, 투표를 좌우하지도 않았다.¹¹⁾ 어느 한쪽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손쉬운 설명은 사실 앞에서 무너진다. 남는 것은 감정이다. 고용과 주거의 불안, 박탈감, 인정받지 못한다는 정서적 감각이다. 흥미롭게도 청년 남성과 여성은 둘 다 공정을 말하지만 그 문법이 다르다. 남성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를, 여성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을 공정이라 느끼고 있으며, 각자의 공정 감각이 강할수록 상대 성별에 대한 배타성이 커진다.¹²⁾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셈이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감정들 자체는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불안과 박탈감은 실재한다. 같은 박탈감이 ‘나의 어려움은 어떤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번역되면 공적 비판과 참여의 동력이 되지만, ‘나의 어려움은 저 집단 때문이다’라는 서사로 번역되면 배척과 적대의 연료가 된다. 오늘의 온라인 환경은 구조적으로 후자의 번역을 더 쉽게, 더 크게 보상한다. 분노가 향한 명료한 표적을 지목하는 콘텐츠가 복잡한 구조 분석보다 멀리 퍼지기 때문이다.

9)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2019.(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의 82.9%가 온라인에서 경험)

10) 한귀영, 「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정치와 공론』 29(2021), 165 - 202.

11) 박영득·김한나, 「한국 청년 세대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향과 투표선택: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6(2)(2022), 5 - 35.

12) 노기우·이현우, 「청년세대 젠더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능력주의와 온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5)(2022), 57 - 86.

정치적 양극화와 한반도 평화

여기까지가 현상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이제 이 논의를 평화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해 본다. ‘평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통(Johan Galtung, 1930~2024)은 평화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다. 인간의 잠재력 실현을 가로막는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 곧 ‘적극적 평화’가 참된 평화라는 것이다.¹³⁾ 이 기준에서 보면 청년의 박탈감을 낳는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은 이미 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것이고,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대립과 배척의 언어가 일상이 된 사회는 이미 평화가 침식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내부의 타자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회가 오랫동안 분단된 상대방과 화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상대 진영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감정의 문법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며, 한번 몸에 배면 그 적대의 칼끝은 쉽게 바깥을 향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대북 정책과 통일 문제는 그 내용으로 토론되기보다 어느 진영의 깃발인가로 판정되는 일이 잦아졌다. 분단 사회의 화해를 평생 연구한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핵심이 제도나 협정 이전에 갈등으로 찢긴 관계의 재구축에 있으며, 그 역량은 사회 내부에서부터 길러진다고 하였다.¹⁴⁾ 한반도의 화해 역량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부의 다른 의견, 다른 성별, 다른 세대와 화해하는 역량 이상으로 자라기 어렵다.

교회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요한 23세 교황은 「지상의 평화」에서 참 평화가 무력의 균형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 사랑과 자유 위에서만 세워진다고 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화를 정의의 작품으로, 끊임없이 건설해야 하는 과제로 선언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형제들」에서 타자를 적으로 만드는 정치를 넘어서는 길로 사회적 우애와 대화의 문화를 제시하였다.¹⁵⁾ 평화가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과제라면, 평화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된다. 민족화해의 길도 결국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데서 시작된다.

13) Galtung, J.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 – 191.

14) Lederach, J. P. (1997).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5)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1963), 113 · 16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1965), 78항;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2020).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평화를 위한 네 가지 과제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어떤 정당을 지지할 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더라도 인간을 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안에서도 동등한 존엄을 지닌 동료 시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 위에서 네 가지 길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 안에 논쟁과 경청의 공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의견과 함께 머무는 역량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길러지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교회의 지적 전통이 여기에 절차를 제공한다. 중세 대학의 토론(disputatio) 전통, 그 정신이 응축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자기 답을 말하기 전에 반대편의 가장 강한 논거를 먼저 제시하고 마지막에 그 반론에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대 논거를 가장 강한 형태로 먼저 구성해 보게 하는 이 훈련은 보고 싶은 것만 보여 주는 알고리즘 환경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며, 그대로 교실 토론 수업의 절차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쪽 고통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 경청의 원칙이다.

둘째, 온라인이라는 ‘숨은 학교’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금지와 차단이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떻게 감정을 만들고 보상하는 지를 학생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또래 문화에서 유머로 통하는 조롱의 표현이 누구를 어떻게 배제하는지 함께 식별해 보는 활동은 초등학교 눈높이에서도 가능하다.

셋째, 가짜뉴스 판별에 머무는 기존 미디어 교육을 넘어 감정을 다루는 문해력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의 정치적 감정에 이름을 붙여 보고, 같은 박탈감이 배척의 서사와 공적 비판의 언어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는지 비교해 보는 교육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감정을 공동선의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은 정치 감정이 학습되는 최초의 환경이다. 자녀가 보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함께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종교 공동체는 청년이 학교를 떠난 뒤에도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적 공간이다. 성별과 세대를 가로지르는 대화의 자리를 가정 안팎에 마련하는 일에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교회와 기성 세대의 책임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교육을 새로 온 사람들을 세계로 인도하는 어른 세대의 책임으로, 새로 오는 젊은이들을 그 새로움과 함께 환대할 만큼 사랑하는지를 결단하는 지점으로 규정하였다.¹⁶⁾ 이 말을 오늘의 맥락으로 가져오면, 청년 정치 감정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이다. 청년들이 교사 없는 온라인 학교에서 적대의 문법을 배우도록 방치한 것도, 그들의 상처를 경청하기보다 선거의 자원으로 소비한 것도 궁극적으로 어른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다. 우리 교육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청년이 겪는 불만과 상처가 배척의 언어가 아니라 공동선의 언어로 표현되도록 돕고 있는가? 지금의 적대가 학습된 현상이라면, 다르게 학습될 수도 있다. 바로 그 가능성에 교육의 자리가 있고 화해와 일치의 희망이 있다. 평화는 멀리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한 식탁에 앉는 법을 배우는 교실과 가정과 본당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

16) 한나 아렌트, 「교육의 위기」, 『과거와 미래 사이』, 서유경 역(푸른숲, 2005)(원저 1968).